

'그 자리'엔 미혹도 깨달음도 없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①

문 선종을 가리켜 불법의 총화(總和)라 하기도 하고, 모든 종파 종지의 근본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까닭으로 그러합니까.

답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자성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말한다. 율(律)은 부처의 행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열불은 부처의 불원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기 위한 이름(명호)이다. 부처의 행이나 말씀이나 이름도 궁극적으로 다시 잘 생각해 따지고 보면 모두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을 직접 깨닫게 하는 선문을 여

육도 만행 제중에 일반(구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의 일심(一心)이 부처임을 깨달아 알기만하면 수행하지 않아도 육도 만행은 이미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의 일법(一法)은 만행(萬行)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의 속담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百)의 기용(器用)도 일심(一心)에는 이끌수 없다'고. 또 만약에 만행만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근본의 일심이 미혹하면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부처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걸거나 분별 망상 없는 無心 되어야

러 종파의 근본이며 불법의 총화라고 하는 것이다.

문 선종에서는 무념을 근본종지로 하고 무종(無宗)을 본체로 한다고 알고 있다. 만약 무상(無相)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라면 부처의 영덕(靈德)도 나타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또 견성했다고 말해도 본래 상(相)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들 수가 있는가.

답 형체도 모양도 없는 청정 무구한 마음, 그것이 다름 아닌 부처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선의 종지는 너 **문** 무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처럼 재가에 있는 세속인은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가. 또한 수행한다고 반드시 깨닫게 되리란 것도 보장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모처럼 신심내어 애써 수행하여 만약 깨달지 못한다면 이처럼 헛되고 무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답 좌선(坐禪)의 법문은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도(道)이다. 난행 고행을 하지 않아도 법부가 법부 그대로 단번에 깨

그것이 영덕(靈德)이다. 그 영묘한 자기를 자각하는 일 이외에 그 어떤 영덕을 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자기의 마음은 형체도 모양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한 증거이다. 그밖에 어떤 증거를 찾아 구할 필요가 있는가?

문 선은 한마음(一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들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공덕은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행만행(萬善萬行)을 수행한다면 그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고 승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답 <중도기(中道歌)>에도 이미 '단번(頓)에 여러선(如來禪)을 깨달으면

달아 부처가 되는 도이다. 만행만행을 수행하지 않아도 본래 이미 부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좌선의 도이다.

만약에 한번이라도 이러한 좌선의 도(법문)에 들게 되어 그것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곳에서 깨달음의 훌륭한 인연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좌선의 도를 수행한다면 좌선하고 있는 그대로가 불심의 나타남인 것이다. 불심에는 본래 미혹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미혹도 깨달음도 없는 곳에 안착하는 것이 좌선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간 실산의 산중에서 앉아



○범부라도 수행해 자기의 일심이 부처임을 깨달아 아는 바로 그것이 좌선의 도이다.

그것보다는 경전을 읽는다거나(간경), 디라니(주문)를 외운다거나,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을 하든가, 혹은 염불이라도 해서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쪽이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답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예를 들고, 방편을 설치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미혹한 세계로부터 구제해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설법한 말씀을 경(經)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깨닫고 자신의 근원에 되돌아간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경을 독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일 좌선 1일 부처 좌선수행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된다"

종이에 쓰여진 문자나 입으로 외우는 말을 진실로 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문자(文字)를 입으로만 외우고, 입으로 외우는 그곳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후손 겨을 낳아 '불(火)! 불(火)!'이라고 외우고 외친다면 자질로 따뜻하게 될 수 있을까? 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바람(風)', 시원한 바람(風)'이라고 외우고 외치기만 하면 그대로 시원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배가 고플 때에 '밥(飯)! 밥(飯)!'이라고 외우고 외치며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외쳐대 말한다면 그것으로 배가 부르게 될 수 있을까?

언어 문자는 결국 그림속에 그려진 맛있게 보이는 떡과 같은 것이다. 한 생애동안 입으로 외운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에는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계법을 잘 지키거나 영불을 열심히 하여 그 공덕을 의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덕에 맞추어서 영불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범부의 미혹이며 집착인 것이다.

선공공덕을 쌓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선공공덕을 쌓는 일에 소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어려서는 일이다.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육도(육바라밀)의 만행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소독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즉 무심으로 수행 한다고 하면 이를 반야의 지혜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이것이 재물의 무상 청정의 지혜인 것이다. 이 지혜야말로 일체의 미혹한 어려서움의 근원을 절단하는 힘인 것이다. 그래서 반야의 날카로운 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움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좌선 통해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어" "언어 문자는 그림속의 떡과 같은 것"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년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팔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규칙: 대구은행 김창수: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영을 운영하며 불교에 사달리는 불자들을 돕는 불로화정을 통해 오년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화제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용성분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주목되고 있다.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